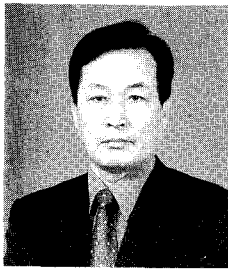


# 폐업보장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오 정 길  
대구경북지부장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수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 양계를 걱정하는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크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었던 탓에 그 불황의 골은 깊어갔고 결국 금년들면서 정부에서는 노계도태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만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은 육종발달로 산란성적이 높아졌고, 과거보다 질병의 적절한 치료 등으로 인한 질병감소, 계란수입 등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소비위축과 생산과잉이다. 따라서 계란소비 홍보와 수수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생산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더욱 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현재 일부에서 일기 시작한 노계도태 및 생산감축을 전국적으로 승화시켜 협회차원에서 동참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농가에서는 산란계의 경기 사이클이 15개월 전후라는 생각을 갖고 과감한 도태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생산감축에는 종계업체에서도 적극 협력을 해야하는데 일시적인 부화중단이 아닌 적정수수 유도를 위한 과감한 도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계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이 기회라 생각한다.

최근 마스크를 통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 역으로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들에게 계란소비촉진을 호소할 경우 의외로 불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폐업보장을 할 수 있는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내의 농가들중 소규모로 사육하는 열악한 농가들도 대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불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들도 오직 양계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양계인들이다.

적은 규모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뛰어난 이들을 정부에서는 이대로 방관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양계**